

전남도청 동부권 청사 순천 신대지구로 확정

순천시, 토지확보 용이성·접근성 등 높은 점수

325억 들여 2022년 준공 ...준비 허술로 지역 갈등 부추겨

순천시 신대지구가 전남도청 동부권 통합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 은 이날 전남도청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로 순천을 선정했다.

순천시는 종합심사 결과, 120점 만점에 111.52점을 받아 101.72점을 받은 여수시를 제치고 통합청사 부지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토지(면적 33,574㎡)확보의 용이성과 동부권 접근성, 행정 절차, 금융

기관 이용 편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은 김영록 지사의 공약으로, 325억원을 들여 순천·여수·광양 등 도내 동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행정기관을 수용하는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이다. 3만3000여㎡ 부지에 325억 원을 들여 2020년 착공해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동부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부지,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 신용보증재단 등을 모두 수용한다. 도청 직원 100여명 등 260명이 상주하게 된다.

전남도는 도시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까지 맡기며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공모 전부터 여수·광양시가 특정 시에 유리한 평가 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지역인 ‘통합’은 커녕,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광주전남연구원은 기존 방침을 변경, 평가 기준을 수정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연구원측이 애초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후보지들이 ‘유치 신청 철회’에 광양시의회까지 공정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갈등’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이에 비판도 제기됐다. 수백억원이 투입된 도시사 공약사업임에도, 허술한 준비 과정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부권 통합청사 선정 과정과 의미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대북지원 800만달러 국제기구 송금 완료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지원 하는 800만 달러(94억여원)를 해당 국제기구에 송금했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에 대한 800만 달러 송금을 이날 오후에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집행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통해 WFP의 북한 영

양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결 후 6일 만(업무일 기준 3일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WFP와 유니세프는 정부가 지원한 현금으로 자체적인 구매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물자를 조달하게 된다. 일부는 이들 국제기구의 사업 수행비로 쓰인다.

실제로 지원 물자가 북한 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데는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국제기구들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전달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외교부 “유람선 실종자 모두 발견할 때까지 최대한 노력”

구조 당국 실종자 수색

시신 유실 철저 대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채 침몰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11일(현지시간) 수면 위로 일부 모습을 드러냈다. 사고 13일만이다.

헝가리 대테러센터(TEK) 등 구조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47분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연결된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을 가동하며 선체 인양을 시작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26분 만에 허블레아니호의 조타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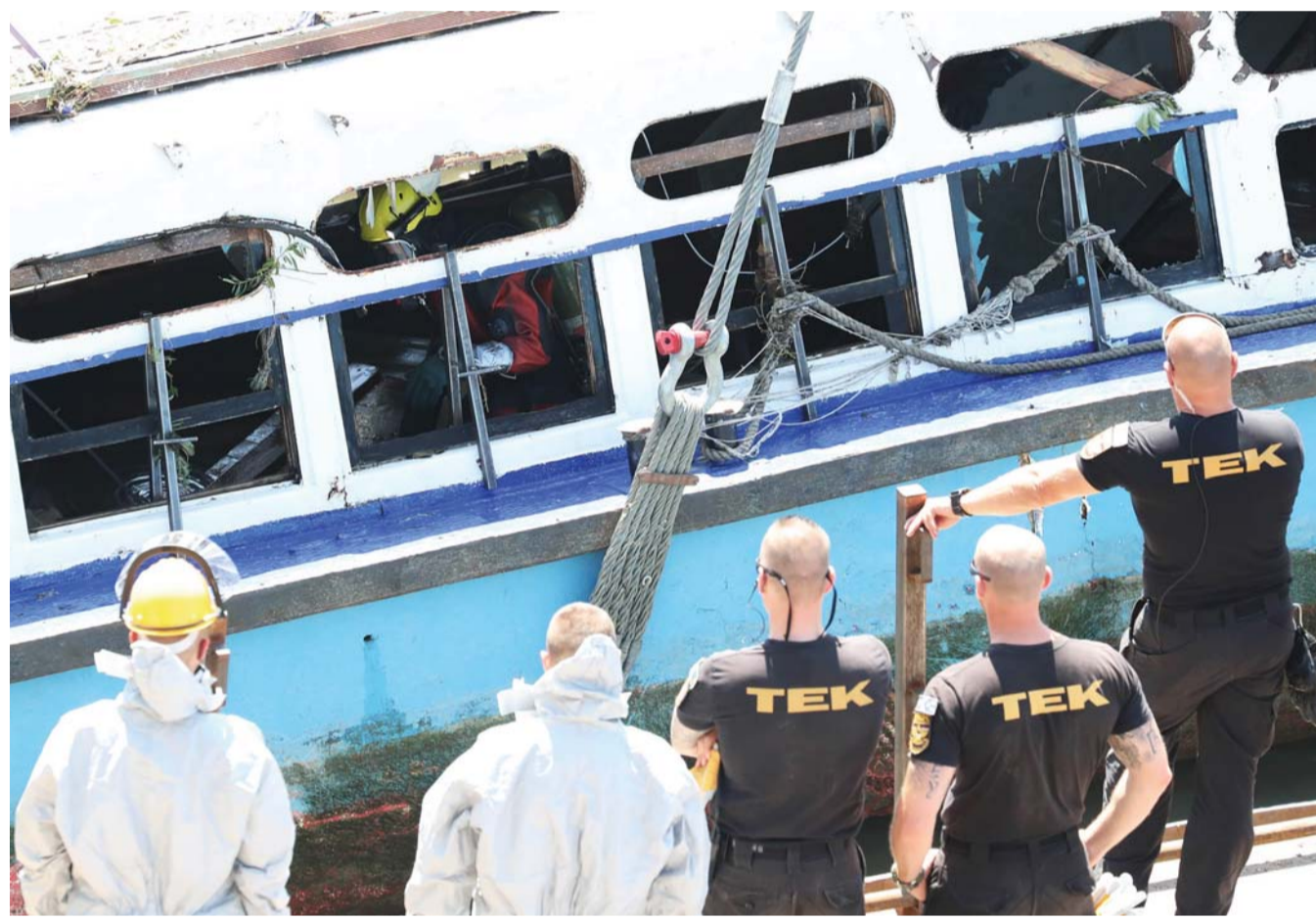
이날 사고지점 다뉴브강의 수위는 6.7m로 한때 9m 안팎에 이르던 것보다 크게 내려갔다.

헝가리 당국은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5cm씩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었으나 수위가 낮아지면서 허블레아니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조타실 모습을 드러냈다.

조타실 수색 후에는 갑판까지 인양하게 되며 갑판이 모습을 드러내면 한국과 헝가리 구조요원들이 진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선다.

선체가 흔들려 선내에 있는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에 대비해 머그리트 다리 하류쪽으로는 소형선박과 고무보트 17대가 대기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헝가리 당국은 전날 선체 인양을 위한 본 위어 결속 작업을 마무리했고 크레인 클라크 아담을 사고 지점에 정위치 시키면서 인양 준비를 마무리 지었다.



선체 내부 수색하는 헝가리 대원

허블레아니호 인양 작업이 시작된 1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그리트 다리 아래 인양현장에서 헝가리 대원이 선체 내부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외교부는 1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종자를 모두 발견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인양작업은 선박의 균형 유지를 통해 시신이나 유품의 유실방지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기획관은 인양 뒤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있을 시 계획에 대해 “정부는 마지막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양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종자분들을 가급적 많이 확인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희망”

이라고 말했다.

강형식 기획관은 또 침몰사고의 책임규명을 위한 헝가리 당국과 공동 진행 상황에 대해 “헝가리 당국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날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지지율 2개월만에 다시 1위

리얼미터 광역단체장 평가

이용섭 광주시장 2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대상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만에 1위를 되찾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단계 하락했으나,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게 대한 시도민들의 높은 지지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9년 5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지사의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지난달 대비 5.6%p 상승하며 3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1위를 회복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던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달 대비 0.1%p 하락한 60.3%로 2위로 한 순위 하락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1.3%p 상승한 56.8%로 5개월 연속 3위를 이어갔다.

4위는 54.6%를 기록한 이시종 충북지사, 5위는 51.4%인 송하진 전북지사였고, 6위는 50.9%를 보인 최문순 강원지사, 7위는 원희룡 제주지사(50.3%)였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49.5%), 이춘희 세종시장(49.2%), 양승조 충남지사(47.2%), 권영진 대구시장(46.8%), 이재명 경기지사(44.9%), 오거돈 부산시장(42.5%), 박남춘 인천시장(42.4%), 허태정 대전시장(42.2%), 김경수 경남지사(39.9%), 송철호 울산시장(33.5%)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8.1%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5개월 만에 1위로 상승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4위(46.2%)였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62.9%로 2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광주는 61.2%로 2계단 상승하며 2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이며 응답률은 5.6%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시군, 내년 전지훈련팀 유치 협력

전남도가 2020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10일 내내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 시·군, 체육회 전지훈련 담당자 회의를 10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전지훈련 합동 유치 방안 및 합동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수요 파악 등이 논의됐다. 전남도와 시·군, 체육회, 유관기관으

로 구성된 전지훈련 TF팀을 구성해 2020 시즌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구체화했다.

이외함께 종목별 협회 및 대회별 중앙 종목 단체를 통한 종목 타깃을 정해 맞춤형 유치에 나서자는 방안과, 선수단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 연계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훈련 장비 지원 방안, 숙박업소 및 음식점과의 공동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